

한국형 스마트 디지털지적 확장한다

-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개최... 첨단기술과 융합
-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... 스마트 디지털 지적 혁신 피할 것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측량수행자(한국국토정보공사, 민간지적측량업)를 대상으로 ‘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’(23.5.22.~5.23.)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시·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, 측량수행자(한국국토정보공사, 민간 지적측량업)가 참여하여 드론을 직접 조정하고 획득한 공간정보에 대한 기술평가 등에서 고득점을 받은 각각 2개팀*이 선정되었다.

* 지자체 공무원(강원 횡성군, 경남 사천시), LX(부산울산지역본부, 인천지역본부), 민간 지적측량업체(대구수성구 누리이앤이, 광주 소재 연제측량기술원)

○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지적도 모형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지난 5월 9일(화) 부위원장인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‘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(위원장: 국토교통부 장관)’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첨단기술과 융합한 사업구조 혁신*, ②지역별 문화와 역사적 자산을 융합한 사업모델**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로봇자동화 기술(RPA)을 통해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, 항공·차량 라이더 등을 통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취득하고, 3D 디지털 지적도 모형 구축

** 지역 사투리를 활용한 홍보콘텐츠(쇼츠) 배포, 발담 등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진행 등

□ 국토교통부 오성의 지적재조사기획관은 “앞으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술혁신,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등 홍보전략과 함께 상향식(Bottom-up)과 하향식(Top-down) 방식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도시실 지적재조사기획단	책임자	기획관	오성익 (044-201-3469)
		담당자	사무관	손기열 (044-201-4657)
			주무관	박다솜 (044-201-4659)



□ **개 요**

- (배경 및 목적) 측량수행자 등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의 토지 경계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
- (時/所) '23. 5. 22(월) ~ 23(화) / 국토정보교육원(충남 공주시 소재)
- (참가자) 약 150명(공무원, 민간, 한국국토정보공사 등)

□ **주요내용**

- (대회방법) 공무원, 공사, 민간 팀을 구분하여 대회를 운영하고, 드론촬영, 후처리(정사영상 제작), 성과물 작성·제출 순으로 진행
 - 팀별 주요 업무영역*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조건 부여
 - * (공무원) 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성과에 대한 성과검사, (LX공사) 토지 경계조정, (민간) 일필지측량, 면적측정 및 계산
- (순위결정)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*이 평가하고, 심사위원별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
 - *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LX공사 각 3명씩 선정 후 교차 심사
- (시상) 국토교통부장관상, LX공사 사장상,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
- (대회결과)

구분	공무원	LX공사	민간	비고
1위	강원 횡성군	부산울산지역본부	누리이앤이 (대구 수성구 소재)	
2위	경남 사천시	인천지역본부	연제측량기술원 (광주 북구 소재)	

1. 회의 개요

- (일시) '23. 5. 9.(화) 13:30 ~ 15:30
- (장소)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서울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
- (주제) 국토도시실장(부위원장)
- (참석자) 총 16명 중 7명 참석(민간위원 6명)
 - * 회의 당일 기준 제5기 민간위원(12명) 임기 만료('21.5.10~'23.5.9, 2년)
- (안건) NEW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안(보고)

2. 주요 논의내용

- (협업체계 강화) 유관사업 연계 확대를 통해 사업 효율성·효과성을 제고하되,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 필요
- (신기술 활용 및 DATA 관리) 3D, AI 등 신기술 접목에 대한 평가·관리, 최신 공간정보에 대한 지속적·체계적 활용방안 등 강구 중요
- (성과분석 및 홍보) 지적재조사 성과에 대한 기술적·사회적·경제적 분석 및 국민 체감형 홍보로 성과 확산 및 사업 인지도 제고 필요

3. 향후 계획

-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'23년 업무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며, 제6기 민간위원(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) 선임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

참고3

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- (추진배경)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*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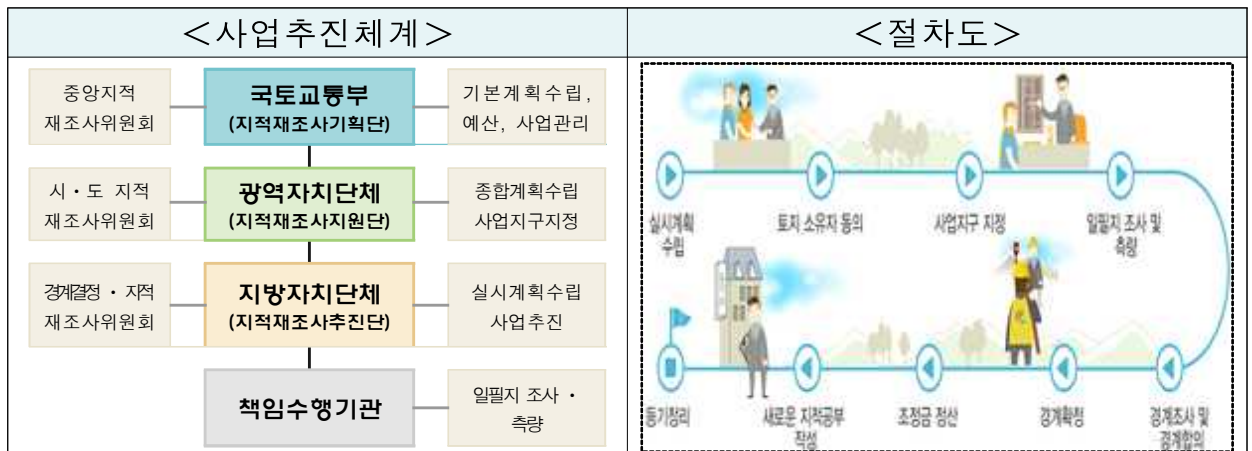
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

- (사업내용)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필지 (전국 3,743만필지의 14.8%)	'12 ~ '30 (19년간)	1조3천억원 ('12년 예타)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1. 9. 16. 제정)

- (추진체계 및 절차) 국토부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시·도(지구 지정), 시·군·구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책임수행기관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

지적재조사 추진현황

연도별 추진실적



지역별 추진실적

